



- Emma(75세)
- 여
- 시애틀 거주
- 무직
- 최신 전자기기를 다룰 줄 모름
- 가족구성원: 남편

<불만족도>

- 홈페이지 접속을 하고나서 원하는 제품을
- 검색하는 방법과 주문하는 방법을 모름
- 홈페이지 폰트,디자인이 노인들에게 불친절하다고 생각

<니즈>

- 주말마다 찾아오는 손자,손녀들을 위해 맛있는 과자와 라면,간편식등을 구매하려함



- Jane(40세)
- 여
- 뉴욕 거주
- 패션회사에 재직
- 주로 휴대폰으로 쇼핑을 함
- 가족구성원: 남편,아들,딸

<불만족도>

- 모바일 홈페이지 UI/UX에 불만
- 홈페이지에 제품의 가격과 구성이 제대로 표기가 안됨
- 조리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조리할때 불편함을 느낌

<니즈>

- 퇴근후 남편과 아들,딸에게 저녁을 제공하려고 간편식을 주로 구매함



- Kevin (7세)
- 남
- LA 거주
- 유치원생
- 최신 전자기기를 잘 다룸
- 가족구성원: 아버지, 어머니

<불만족도>

- 홈페이지의 디자인이 오랜기간 보기에는 눈에 피로도가 쌓임
- 광고가 아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음

<니즈>

- 맛있는 과자와 음료수를 좋아함
- 애니메이션 광고시청을 좋아함



- 홍길동(30세)
- 남
- 경기도 안양시 거주
- IT회사 재직
- 자취중

<불만족도>

- 홈페이지에 제품의 리뷰가 자세하지 않아 원하는 정보를 얻기 힘들어함
- SNS를 활용한 정보제공이 부족하다 생각

<니즈>

- 퇴근후 간편식과 라면을 주로 즐겨함